

禪으로 그려낸 달마·천진불, 현해탄을 건너다

동성 스님 등 7인 日 오사카서 초대전 개최

깨달음을 주제로 한 선묵(禪默)들이 일본에 전시된다. 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에서 활동하는 동성 스님 등은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2016 동글고 밝은 빛'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동성 스님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진리'를 전하고자 1978년 부산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38년간 '붓다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묵화'를 재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몽골 등 세계 주요도시 순회전을 주관하고 있다.

을 표현했다. 2006년에는 세계 4대 古都 인 중국 시안(西安)에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사문동성달마화비(沙門東禪達摩畫碑)'가 세워져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2013년에는 인도 델리대와 톨바이대에서 '선과 정신문화의 기술화'라는 특강과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한·일수교 51주년 기념으로 24~28일, 日 한국문화원서 선묵화 25점 등 전시 진행

이번 전시회도 선묵화를 통해 보여주는 직관의 세계를 보여준다. 전시되는 선묵화의 테마는 △천진불 △보살도 △달마도 △나한도 △미소동자로 나뉜다. 순수한 아이와 자연을 표현한 천진불은 수많은 시공간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

징하며, 중생들의 어려움을 돕는 보살도는 영원한 빛과 생명의 화현을 표현했다.

진리를 의미하는 달마는 선적인 고요한 마음의 집중과 직관을 상징하며, 나한도는 언제나 깨어있는 맑은 마음과 수행을 화폭에 담았다.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다양한 선지식을 만나 선재동자를 의미하는 '미소동자'는 모든 만남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는 설법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동성 스님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의 밝은 희망을 열어가야 삶과 생명의 실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라면서 "많은 관람을 통해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깨닫는 선적 체험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전시에는 동성 스님의 선묵화 25점 이외에도 원학 스님(前 조계종 총무부장), 우현 송영방 동국대 명예교수, 청계 양태서 고려대 교수, 윤산 강행원 가이미술관 관장, 범석 김대열 동국대 교수, 월암 정영남 현대한국화협회 대표, 서래 김선희 한국

미술협회 분과위원 등 7인의 초대작가의 작품 10여점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 대해 고도 텐쇼(後藤藤生) 고다이(高台寺) 집사장은 "동성 스님은 선묵화를 통한 모색과 담론을 제시하는 한편 내적 사유와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 선사상과 예술 내용을 조망하면서 이를 시각언어로 드러내자 했다"면서 "선적인 지혜와 자유를 상징하는 동성 스님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참된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큰 전환기에 있는 한일 양국의 교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왕청일(王淸一) (재)일본학연구소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선묵화는 외적인 사물의 형상보다 내적인 마음의 형상을 통해 삶의 참다운 자유를 상징한다. (동성스님의 작품은) 인간본연의 고요한 마음, 충만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작품"이라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자신의 참모습 볼 수 있고, 참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성 스님의 작품 '달마도'

자수로 놓은 불화, 저절로 합장이

최유현 자수장, 5월 22~29일 '心線神針' 전시

단순히 사진 도록만 봤을 뿐인데도 아찔하다. 다양한 색깔의 실을 한올 한올 바늘귀에 꿰어 다시 도상 위에서 부쳐로, 보살로 수놓아졌을 그 지난한 과정을 생각한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0호 최유현(80) 자수장의 작품은 일반적인 자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예전 용문사의 '연화장세계도'를 발굴해 수를 놓아 모사했고, 팔상도·삼세불도를 자수로 옮겼다. 최 자수장의 자수 외길 인생 65년을 총망라한 전시회가 열린다.

최유현 자수장은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실에서 '心線神針(심선신침)' 자수전을 개최한다. 이번 자수전에는 최 자수장이 그간 제작해 놓은 불화, 민화화 소품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최 자수장은 1988년(연화장세계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불교에 심취해 한국불화 자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 삼세불도, 지장보살도, 팔감강도 등의 불화를 자수로 표현해냈다. 그리고 효제도팔곡평풍, 십이지신도 등도 최유현 자수장의 섬세한 손끝에서 재탄생했다.

최유현 자수장은 "규방문화에서 나온 자수로 입문했다. 민화, 민속문양 등을 작업하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문양을 찾다가 불교를 알게 됐다. 40대 이후로는 주로 불화작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자수장은 "불교미술은 내 작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자수인생 65년을 정리하는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자수 외길인생 65년 총망라 불화·민화 등 100여 점 전시

최 자수장은 1936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했다. 13세 때 바느질을 배웠고, 15세 때 스승인 권수산 선생 문하에 입문해 6년간 사사하면서 본격적인 자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에 있는 여중과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과 자수를 병행했다. 1960년 초 전통자수를 널리 나누고자 최유현자수연구소를 개설해 제자를 양성했다.

국내에서 20여 차례, 해외에서 5차례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 자수장은 10~20



최유현 자수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 '연화장세계도(연화장세계도 1978~1988 270X300)'의 전체 모습(사진 위)과 작품의 부분을 확대한 모습.



자수로 표현된 정밀함에서 명인의 풍모가 돋보인다.

대에는 규방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자수를, 30대부터는 우리 민화와 옛 유물에 깃들여 있는 다양한 문양 자수를, 40대 이후로는 불화 자수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 불화 자수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됐으며, 전국 공예공모전과 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약 40년간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자수문화연구소 중수원(中繡院)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후학 양성을 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대 복식문화연구소에서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괘불 보고, 소원도 빌고

국립박물관, 11월 6일까지 '상주 북장사 괘불'前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대형불화의 진수 '괘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테마전 '상주 북장사 괘불-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를 개최한다.

평소에 대하기 힘든 사찰 소장 괘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테마전은 올해 11번째를 맞는다.

보물 제1278호 '북장사 괘불'은 13.3m의 높이로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괘불 중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석가모니 부처의 영취산(靈鷲山) 설법이 그려진 불화에는 광배를 뒤에 두고 서 있는 부처를 압도적인 규모로 배치하였다. 특히 아외 범회를 위한 괘불의 기능에 맞게 예배의 주존(主尊)을 더욱 부각시켜 긴 화면에서 서 있는 부처로 그려냈다. 이러한 변화는 '북장사 괘불'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지역의 영산회(靈山會) 괘불 도상(圖像)으로 확인됐다.

괘불 전시와 연계해 불교회화실에서는 옛 사람들의 구체적인 염원을 볼 수 있는 불화들을 전시한다. 자비를 베푸고 재난을 구제하는 관음보살(觀音菩薩)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북장사 괘불. 석가모니 부처가 서 있는 모습으로 설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을 그린 불화, 하루 빨리 아들 얻기를 기원하는 '독성도', 수명장수를 바라는 '신중도' 등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이야기를 불화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작년 구입한 보물 제1204호 '관음보살도(1730년)'가 첫 선을 보이며, 보물 제1882-2호와 1883호로 새롭게 지정된 고려시대 나한도 7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고려불화 '오백나한도'와 '십육나한도'는 2층 불교회화실에서 3점, 1층 고려실에서 4점을 전시한다.

신성민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眾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무령 역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천운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염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 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천운사)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으로 받으니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